

숲의 도시 나는 안산에 산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 450호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06

안산의 착한가게를 소개합니다.

착한가게는 2011년 물가안정을 위해 처음 도입돼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우수한 안산의 착한가게들을 소개한다.

12·13

올해는 무슨 행사들이 있을까?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아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을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다.

15

자매결연 강원도 정선군

'아우라지'로 잘 알려진 정선군에 가면 기차를 타고 철길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으며,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18정선고드름축제'도 경험할 수 있다.

20·21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명예기자다!

석수 윈드 오케스트라 - 석수중 이예나
성꽃제로 우리는 하나 - 성안중 장아영
예절교육이 찾아왔다 - 양지중 전성호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꿈 - 해양중 정하음
꿈·끼로 채워지는 마지막 축제 - 원일중 최혜원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The PyeongChang 2018 Paralympic Winter Games
3.9-3.18

관련 기사 14면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8년 1월 31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2018년도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안산시는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산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함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개월 동안 안산시청 주택과(☎031-481-2911)에서 신청 받을 계획이며, 특히 '안산시 주택조례' 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 연립단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주택과(031-481-2911)

별망지하차도 1월 24일 전면개통 안산~화성간 교통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안산시는 단원구 초지동 별망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어 1월 24일 도로를 전면 개통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한 별망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안산시 초지동 연장 842m의 지하차도를 건설한 공사로써 2014년 말 착공하여 약 3년

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국도77호선 연결을 통해 안산시~화성시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지역 간 이동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종화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은 "공사기간 통행불편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교통량 분산으로 스마트허브 근로자의 출퇴근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지속적인 교통모니터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산시는 송산그린시티 및 시화MTV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송산교, 국도77호선 연결, 별망지하차도 개설 등 주변 지역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전개했다.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통하게 되었다.

별망지하차도는 작년 11월 15일 해안도로 개통과 더불어 상습정체구간인 해안로를 이용하

◇ 문의 : 한국수자원공사(1577-0600)

오~에스!!
이젠 **공원**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팡팡!!

안산시 public_Wi-Fi

무료

공원

갈대습지공원, 노적봉공원, 반월공원, 성호공원, 외동체육공원, 화랑유원지

섬 지역

풍도, 육도, 낙조전망대

관공서

시청민원실, 시의회, 차량등록사업소, 상록수·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25개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상록구노인복지관, 단원구노인복지관

문화시설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안산식물원, 여성정보하우스

안산시, 세금 납부할 때 신한은행 가상계좌도 이용 가능 지방세 송금수수료 시민부담 감소

안산시는 1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중은행에 신한은행을 추가했다. 이전까지는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형은행인 신한은행도 새로 지방세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로써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 졌다는 평가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2016년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시민이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절약한 송금수수료가 연간 2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에 대형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의 가상계좌가 새로 열리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한은행 가상계좌까지 새로 선보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 송금수수료를 아낄 수 있도록 하였고,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여 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세정과(031-481-2197)



“야호, 신난다! 눈썰매 타러 가자” 초지역 뒤편 눈썰매장, 2월 15일까지 운영



초지역 뒤편 눈썰매장이 안산의 어린이들을 부른다. 춥다고 긴 겨울방학을 실내에서만 보낼 순 없는 일. 고무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아이들의 입이 함박만하다. 올 겨울은 특히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로, 어느 때보다도 썰매·스키 등 겨울스포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몇 년 뒤 올림픽에서 “오늘의 나는 안산의 눈썰매장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하는 선수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도심 속에 자리한 안산눈썰매장은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광명, 시흥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는 인기 놀이시설이다. 16,500㎡ 넓이에 일반 슬로프(120m×40m), 유아용 슬로프(60m×20m), 손 썰매장(10m×20m)과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기차, 우주선 등 놀이시설을 갖췄다. 140m 길이의 슬로프 꼭대기는 무빙워크를 이용해 올라간다. 부대시설로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100개와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입장요금은 성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4천원이다. 놀이기구와 빙어잡기 체험은 별도의 요금을 받는다. 20인 이상 단체 이용객은 사전 예약을 하면 평일(월~금)에 한해 선착순 500명까지 50% 요금이 할인된다.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슬로프 점검시간이다.

◇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8085-744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소식通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오는 3월 30일까지 전 세대 방문조사 —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 동안 ‘2018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다. 조사기간 동안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조사로,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보건소 해외여행자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 증빙 서류 지참, 가까운 보건소 방문해 수령 —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2018년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및 감염병 위험 국가로 여행 가는 주민을 위해 예방 물품을 배부한다. 물품은 해충기피제, 마스크 등이며, 물품이 필요한 주민은 해외여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표, 예약내역 등)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여행사를 통한 일괄 신청은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의 증가에 따라 해외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도 증가되고 있어,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최신 소식은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또는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9), 단원보건소(031-481-3475)

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미세먼지 발생억제로 시민 건강 ‘적극 보호’

안산시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1월 22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

유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안내 및 신청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안내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보기』배너를 통해서도 내용 확인가능

2. 제공기간·주기 등

◇ 지방선거 안내 : 시기별·이슈별로 주 1~2회 제공

◇ 상시안내: 월 1회 정도 (※ 선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주요 제공내용

◇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

4. 신청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503-0872)

상록구 '농기계 관정 지원 사업' 접수

— 2월 9일까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 —

안산시 상록구는 영농편의 및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대형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사업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8천 7백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농기계는 구입금액의 60%(대형농기계 최대 1천 8백만 원, 부속작업기 최대 180만 원), 관정은 개발비용의 80%(농업용 관정 최대 120만 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경작규모, 연령, 학습단체 활동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 문의 : 상록구청 경제교통과(031-481-5312)



안산 최초 주민 발의 ‘4.16조례안’ 시의회 가결…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담아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생명과 안전 중심의 가치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안산시민들이 청구한 조례가 안산시의회를 통과해 가결·제정됐다. 8,796명의 주민 발의를 통해 마련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이하 4.16조례)’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안산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안산시의회 재적의원 20명 중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표 반대 9표, 1표 차이로 통과됐다.

4.16조례는 4.16정신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4.16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을 조문화했다. 주요시책으로는 기록보존, 추모사업, 치유와 회복 조치, 기념일 지정, 4.16교육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된 날 4.16안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역사적인 4.16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함께 아파했던 세월호 피해자와 안산시민에게 치유와 위로의 선물이 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

정으로 응집된 안산시민의 힘으로 4.16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산에서부터 돈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정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며, 공동체의 체온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4.16안산시민연대 임주현 기획추모위원장은 “4.16조례의 경우 많은 세부내용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주민 발의로 제안된 4.16조례 시행과정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4.16조례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5년 ‘4.16안산시민 1,000인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을 안산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조례안 초안 작성과 수차례의 시민토론,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4.16의 핵심가치를 담은 최종안을 완성했다. 그 후 지난해 3월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90일 동안의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전개, 약 8천여 명의 서명으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었다.

◇ 문의 : 안산시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031-481-3315)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2018 클린투어 신청하세요!

폐기물 처리 과정 체험… 자원절약 생활화 ‘도움’



안산시는 시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공개 및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자원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환경견학 프로그램 ‘클린투어’를 오는 2월 1일부터 운

영한다.

‘2018년 클린투어’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을 순회하며, 해당 시설물의 운영상황에 대한 해설과 동영상 시청 및 시설물 현장견학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당 시설물이 공단 내부에 있는 관계로 안산시민 20명 이상이 단체로 클린투어를 신청할 경우에는 45인승 버스가 지원된다. 매년 가장 많이 클린투어를 신청하고 있는 지역 내 초등학교 일선 교사들은 “현장중심의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매년 2천 5백여 명이 클린투어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더 많은 시민과 단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재활용의 소중함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해 좋은 교육과 경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6, 0279)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녹색소비 10%를 향해!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녹색생활 실천하는 길”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구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이하 친환경센터)는 민간 부분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 1일 문을 열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이해하고 구매할 뿐 아니라,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녹색어린이집만들기와 녹색학교만들기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또한, 개소 이후 5년 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안산지역 주요 기관들과 민간부문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소비를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300여 곳 중 10% 이상이 녹색어린이집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녹색소비 생활 캠페인을 실시해 아이들에게 녹색소비를 교육하고, 가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녹색학교만들기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녹색소비를 쉽고 흥미롭게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녹색소비자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안산신길중에서 처음 시작해 양지중, 상록중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지중학교는 3년 동안 녹색학교만들기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개척, 다른 지역이나 학교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친환경센터 관계자는 “녹색소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수준을 낮추거나 친환경 생활로 조금씩 바뀌나가야 한다. 또한, 내 생활을 돌아보며 환경을 지키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고민스러울 때는 환경이라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녹색생활의 일부분으로 우리는 이미 녹색소비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는 안산시를 비롯해 안산의제21,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친환경상품지원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문 의 :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031-485-7733)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사업 공모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은 100가지 일”



안산시는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마을의 주인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바꾸는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참여주체와 사업내용에 따라 일반 공모사업과 기획

공모사업으로 나눠 모집한다. 이웃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 동아리로서 안산시 거주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공동체나 모임이면 참여 가능하다.

일반 공모사업은 ▶마중물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반 마을살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나뉜다. ‘마중물’ 사업은 학습, 취미 등 마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의 계기를 마련해줄 5인 이상 소규모 모임이 대상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정주의식을 높여 줄 공공성을 담은 주제의 활동으로 주민 10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을살이’는 경기도 따복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으로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접점을 찾고 실천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거점 공간 조성’ 사업도 경기도 따복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활동이 대상이 된다.

기획공모 사업은 ▶마을살이 실천연구 ▶마을재생 기반 마련 사업이다. ‘마을살이 실천연구’ 사업은 마을 만들기 활동의 주민참여 기회 확장과 정책·방향성을 함께 찾는 연구 활동으로 마을쓰레기 문제, 안전한 통학로, 주차 등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의제 기초조사가 대상이 된다. ‘마을재생 기반마련’ 사업은 2017년 25개동 마을상상프로젝트로서 마을상상추진단과 마을네트워크모임을 지원한다.

사업제안서는 오는 2월 7일까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문 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상록수 · 단원보건소

“금연! 결심만 하세요… 우리가 도와 드릴게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시민은 상록수 · 단원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민경(57세 · 팔곡이동)씨는 올해는 꼭 담배를 끊고 싶어 아들 안내로 금연클리닉을 찾았다. “다른 집은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 아들이 나를 데려왔어요. 정말 담배를

끊고 싶는데, 의지가 약한지 어렵네요. 올해는 금연클리닉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금연하고 싶어요.” 금연 성공은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 금연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문을 열고 다양한 지원으로 금연성공을 돕는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단원보건소)과 주말(상록수보건소) 클리닉을 운영한다. 각 저녁 7시부터 9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다. 또한 10인 이상의 금연 결심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이동금연클리닉’, 3명 이상 주변 친구나 동료가 함께 참여하는 ‘삼삼오오 금연동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사가 먼저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하고 1:1 맞춤 상담으로 체계적인 금연 관리를 시작한다. 또한 금연보조제와 각종 금연 행동 강화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축하의 의미로 5만 원 권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삼삼오오 금연동료 성공 참여자에게는 1만 원 권 상품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안산시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금연을 결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시길 바란다.”며 “금연상담사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연 계획을 세우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 금연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17년에는 총 2천 251명의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상담을 받았고, 이중 865명(39%)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031-481-5899), 단원보건소 금연클리닉(031-481-347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①



성포동 한식뷔페 ‘이천밥상’

제철 재료로 준비한 소박한 집밥을 드실 수 있어요



© 김진국

안산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인근 업소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별해 ‘착한가격모범업소(이하 안산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있다. 안산착한가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며 가격, 서비스, 공공성 등의 기준을 거쳐 선정된다. 안산착한가게는 2017년 12월 현재 56개 업소가 있으며,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지면으로 소개한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성포동 예술공원 인근의 소박한 한식 뷔페집 ‘이천밥상’이다. 점심시간이 지난 주말 오후, 식당에는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

었다. 이천밥상에는 기본 메뉴로 매일 8가지가 넘는 반찬과 제철 과일이 준비돼 있었다.

Q. 이천밥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요즘 다들 바쁘게 살고, 끼니 챙기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박한 집밥을 드실 수 있는 곳이지요. 매일 새벽 농산물시장에서 아내와 장을 봐서 그날그날 음식을 만들어요. 아무래도 제철 재료를 중심으로 구입해 메뉴를 준비합니다. 특히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님들도 오시고 동네 분들,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원하는 만큼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Q.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

신선한 찜과 곁들여 먹는 제육볶음이 인기가 많아요. 또, 생선구이도 좋아하세요.

Q. 경영 노하우가 있다면?

식당을 운영하기 전에는 토목일을 했었는데, 일의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지요. 그런데 매번 식사를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웠어요. 아침식사가 되는 식당을 찾는 것도 일이고, 끼니때마다 무엇을 먹어야하나 고민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집밥처럼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이 있

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식뷔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 아침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인건비부터 재료비, 임대료까지 사실 경영하는데 어려움은 많지만, 손님들이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천밥상을 찾는 모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성포동에는 이천밥상 외에 예술세탁소(화랑로 501 112호)가 안산착한가게로 선정됐다. 인터넷검색창에서 ‘안산 착한가게’를 검색하거나 안산착한가게 블로그(blog.naver.com/iansancity)를 검색하면 다양한 안산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볼 수 있다.

주소 : 상록구 예술광장로 49, 108호
(070-4122-3389)

영업시간 : 오전 6시~저녁 9시30분(연중무휴)
가 격 : 한식뷔페 6천원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27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내고향 광주식당 좋은 재료와 정성이 가득~



오픈한지 7년 정도 됐다.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해 물가가 올라도 가격은 그대로다. “이윤을 좀 덜 남기면 된다”는 입장이며 “앞으로도 식당을 운영할 때까지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식당의 장점은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등 주요 식재료를 시골에서 가져온다는 것이다. 참기름도 전라도 남원에서 직접 짜서 올라온 것을 사용한다. 청국장, 제육볶음, 부대찌개 등이 인기메뉴이다. 푸짐한 양과 맛있는 반찬까지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104호
전화 : 031-403-8336/정기휴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장지영헤어샵’ “어르신 커트는 5천 원입니다”



2011년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된 장지영헤어샵은 어르신 커트와 퍼머 등에서 다른 미용실의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 시절 바느질, 디자인등 손으로 하는 일에 관심과 재능이 많았던 장지영 원장은 28살에 미용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다. 각종 미용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얻기도 했고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현재 어르신 커트 5천 원, 퍼머는 1만5천 원을 받고 있다.

주소 :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24
전화 : 031-406-3989 / 정기휴일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한식 ‘다 빈’ 어머니의 손맛



60대 부부가 1995년부터 22년째 운영하고 있다. 순두부찌개, 된장찌개는 5천원, 찜밥정식은 1인분에 7천원(2인 이상)이다. 싱싱한 채소와 제육볶음, 된장찌개, 어묵볶음, 깍두기, 미역 무침, 콩장, 숙주나물, 멸치볶음, 셀러리 장아찌 등 정갈하게 한상 가득 차려진다. “내 식구 먹이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만든다”는 ‘다 빈’. 손맛과 좋은 재료와 정성이 가득하다. 식당 내부는 모두 좌식으로 바닥이 따뜻하고 전체 분위기는 깔끔하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건물 지하 106호
전화 : 031-413-8818 / 정기휴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사회활동 지원… 삶의 활력소 제공

공원 · 버스정류장 관리, 강사, 말벗, 인형극단 참여 어르신 모집



아이들에게 행복한 선물을 전해주는 ‘찾아가는 실버 인형극단’,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강사파견단’, 벗이 되어 희망을 전해주는 ‘은빛또래 도우미’ 등.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들은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관장 김영철, 이하 복지관)이 진행하고 있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단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대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일자리와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어려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의 합성어) 서비스 ‘은빛또래 도우미’와 ‘실버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말벗도 하고 생활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또래의 벗을 만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은빛또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처음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모든 것이 모험이었다. 지금은 대상자와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다. 노인일 자리는 내 삶의 활력소”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강사파견단은 특정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전문 교육이 가능한 참여자를 선발하여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한자, 동화 구연, 악기지도 등 다양한 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강사단 어르신도

행복해하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옛날이야기와 장구교실 등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을 좋아한다면 ‘아이사랑 나누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하원을 돕는다.

복지시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도우미도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돼 위생관리 활동을 한다.

김영철 관장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건강한 노후, 취업을 통한 경제적 문제 해결, 사회관계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2018년에도 공원관리 및 버스정류장 관리, 등·하원 지도, 교육 강사, 말벗서비스, 인형극단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하고 있다.

◇ 문 의 :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031-414-227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치료보다 예방을, 과잉보다 적정을”

마을 건강 챙기는 건강파수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병원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 환자의 권리존중과 생명가치가 우선되는 의료를 실현한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경창수, 이하 안산의료사협)이다.

안산의료사협은 1991년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안산시민의 모임’에서

출발, 1999년 안산의료생협 추진을 결의했으며, 2000년 월피동에 새안산의원, 새안산한의원을 개원했다. 2009년에는 안산의료사협, 화랑신협, 안산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이 모여 우리생협치과를 개원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간 협동이다. 이후 2011년 ‘꿈꾸는 집 요양원’을 개원하며 노후까지 책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으며, 2015년에는 본오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새안산상록의원도 개원했다.

진료실 밖 마을 속으로 들어가 환자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치료와 보건·복지가 통합된 의료서비스로 병원의 패러다임을 바꾼 안산의료사협은 진료실을 찾은 환자이든 주사나 약 처방 대신 예방법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건강 상식을 먼저 알려주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강모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한다. 병원을 활동공간으로 개방하기도 한다.

‘치료보다 예방을, 과잉보다 적정을’을 모토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방의료 활동과 주치의 서비스 위주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항생제 처방률은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윤이 아닌 소신에 따른 진료다. 치과치료도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다.

안산의료사협을 끌어가는 힘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참여다. 현재 6천 명. 가구원을 포함해 약 2만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5만원의 참여로 병원의 주인이 된 조합원들은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니, 문턱은 낮아지고 건강은 올라가서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그림, 걷기, 영어, 노래, 댄스까지 각종 소모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취약계층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나 재가장기요양센터는 치료와 예방, 돌봄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다.

경창수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건강의 주체로서 자기선언과 함께 지역의 건강을 위해 취약계층의 아픔을 보듬는 일도 잘 진행되어 왔다. 특히 ‘발로 뛰어 봉사단’은 주2회 독거어르신 밀반찬을 만들어 집집마다 전해주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봉사’ 등으로 확산되는 것이 보람이자 성과다. 늘 주민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031-401-220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④

“보는 것만으로 진땀나는 펜싱… 체험기회 늘리겠다”

● 펜싱선수단 이현수 감독



안산시청 소속 펜싱부가 체계적 진로 인프라를 구축하며 체육 인재 육성과 펜싱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에 육상·탁구부로 운영해오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 2006년 펜싱·유도·씨름 종목을 창단했다. 특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효자종목으로 떠오른 펜싱부에 이현수 감독을 영입했다.

이 감독은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사브르(sabre)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출전을 시작으로,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과 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에서는 남자 사브르 대표팀 코치로서 이승원의 2관왕을 견인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는 안산시청 펜싱부 창단 감독으로 부임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브르 여자선수 5명으로 시작한 안산시청 펜싱부에는 현재 이현수 감독과 최명진 코치를 중심으로 9명의 선수(플뢰레 4명, 사브르 5명)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각종 전국 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명문 펜싱팀으로 자리 잡았다. 2006년에는 김혜림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도하 아시안게임에선 단체전 은메달,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개인 첫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2017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윤지수, 서지연 선수가 속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한국 최초로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고, 9월에는 안산시청 펜싱부

가 ‘제55회 전국 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와 ‘제19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대회’에서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했다.

이 감독은 “펜싱은 규칙을 알고 나면 관람만으로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흥미진진한 스포츠다. 순간적 판단력과 집중력, 순발력, 지구력 등 심신을 단련시켜주는 펜싱이 그동안 고급스포츠라는 선입견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다. 안산시청 펜싱부는 입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동안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교실을 열고 있다.”고 했다.

한편, 1월부터는 안산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6개 종목에 펜싱이 포함돼 와동체육관에서 초등부를 대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김혜림 선수가 지도자로 활동한다.

이 감독은 “그동안 안산시에서 배출한 선수들이 성안중과 상록고에서 펜싱팀을 이끌며 국내는 물론 각종 세계대회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창출과 펜싱 인재 육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국 유망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팀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시청 펜싱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과 메달 획득을 목표로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사동 감골주민회, ‘6월 민주상’ 본상 수상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높이 평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제정된 ‘6월 민주상’ 본상 ‘다함께상’에 안산시 상록구 사동 감골주민회(대표 이영임)가 선정됐다. ‘6월 민주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기획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50건의 사례 중 최종 4개(본상 3개,

특별상 1개)부문 수상자를 선정했고, 감골주민회는 공동체를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꽃피운 사례로 본상을 수상하며, 상금 1천만 원도 함께 전달받았다. 주최 측은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히며 마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감골주민회는 지난 2010년 석호초등학교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던 학부모들이 마을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활동을 하면서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을 만나면서 시작된 관심은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2년 놀이터축제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안산 최초로 마을카페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들을 개척해왔다.

또한 주민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설립한 마을숯합동조합은 마을카페와 함께 목공방, 공동부엌 등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요일아리를 비롯해 요리, 목공, 수공예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마을교사로 성장했으며, 마을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들을 함께 만들어 어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사동 300인 주민원탁회의’를 열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2017년에는 청소년공간을 따로 마련해 대안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영임 대표는 “마을공동체 운동 과정에서 함께한 회원 분들과 마을주민들, 주민회를 지지하고 지원해준 많은 기관과 단체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미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마을활동,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6월 민주상의 뜻을 되새기며 더 힘내서 마을살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골주민회는 2018년에 문화마을 사업이 시작되는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고, 마을계획을 통해 찾은 마을의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갈 예정이다.

◇ 6월 민주항쟁 :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다.

◇ 문의 : 마을숯카페(031-408-760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상록구 사동, 마을 역사와 이야기를 담다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 책 발간



상록구 사동에서 지역사(地域史)를 공부하던 주민들이 마을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란 이름으로 나온 책은 사동의 역사와 더불어 과거와 현재 사동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리포구의 기억을 간직한 이들, 500년 동안 사동에 터를 잡고 살았던 양주최씨 집안, 1980년대 한양대 학생이었던 주민들의 이야기 등 마을의 희로애락을 간직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사동지역사모임은 2015년부터 신대광 교사(원일중)를 통해 안산 지역사 강의를 들으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산업도시이자 계획도시로만 알았던 안산에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왔고 마을 곳곳에 역사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도 정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책 발간을 결심했다. 특히 “아이들이 사동을 그냥 스쳐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자랑스럽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 안산문화재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3년 동안 조사와 기록 등 도서 제작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책 발간에 합류했던 사동의 한 주민은 “직접 뛰며 조사했던 사동의 모습은 새로움이었다.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뒷산의 명칭이 달봉재산이었고, 지금도 산에서 기와나 도기 조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예전에는 이곳이 바닷가였고 주말마다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도 몰랐던 이야기였다.”고 했다. 평범한 주민으로 인터뷰와 구술, 녹취작업을 거쳐 글을 썼던 사동 주민 이미경 씨는 책 후기를 통해 “사동을 자세히 보고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 많다보니 익숙했던 공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사동이 갖고 있는 역사, 의미,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함께 했던 최은숙 씨는 이번 기회를 “배움의 시간으로 기억한다.”며 “석호초에 사리포구에서 조업하던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이야기였다. 서툰 인터뷰였지만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 곳곳이 가정을 일구고 전통을 이어오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책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는 사동지역사모임에 문의하면 구매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 문의 : 사동지역사모임(010-9028-9252)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제4회 ASAC창작희곡공모전 윤미현 작가의 ‘텍사스고모’ 최종 당선

“우리사회의 민낯을 날카롭게 드러낸 현실인식 돋보여”



안산문화재단은 ‘제4회 ASAC창작희곡공모’에서 윤미현(38세) 씨의 ‘텍사스고모’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안산을 배경이나 소재로 한 공모전에서 안산이란 공간성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안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새로운 극작술의 가능성이 무대화 과정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텍사스고모’는 결혼과 미국에 대한 환상으로 미국 남자를 따라 36년 전 이 땅을 떠났던 여성이 멕시코의 농장에서 일만 하다가 아이 셋을 낳고 6년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내용이다. 이 여성은 한국으로 돌아와 의정부 양말 공

장에서 일하지만 한국의 식구들에게는 실상을 숨긴 채 여전히 미국 텍사스의 근사한 집에서 잘살고 있다고 속인다. 네 자녀를 둔 그 여성의 오빠는 환갑을 맞은 나이에 키르키스스탄에서 온 19세 여성과 결혼 해 그녀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린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일이 흔한 그 마을의 다문화 가정 혼혈2세들이 갖는 모멸감과 자괴감, 이 사회에서 느끼는 이질감들이 중첩적으로 표현된다.

윤미현 작가는 ‘텍사스고모’를 통해 소외된 타자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가난한 나

라 출신 결혼 이주여성을 인간이하로 취급 하는, 어느새 가해자로 변모한 우리사회의 민낯을 낱알이 드러냄으로써 다문화 속 문제를 제기한다. “다문화 문제는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어요. 우리사회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단일민족임을 고수하면서 보수성을 보이죠. 결혼이주 여성을 우리 국민으로 맞이할 거면 마음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곡은 동시대성 위에서 현실을 투영한다. 윤미현 작가는 세월호 참사를 빚댄 ‘할미꽃단란 주점 할머니가 멜론 씨를 준다고 했어요’,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궤짝’, ‘장판’, ‘팬티 입은 소년’, ‘젊은 후시딘’, ‘뒤통길러’,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등 작가 특유의 풍자와 역설이 가득한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수학했고, 2004년 민음사 ‘세계의 문학’ 중편소설 공모에 ‘통조림’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2012년 서울연극협회 희곡공모 ‘평상’ 당선, 한국희곡작가협회 신춘문예 ‘우리면회 좀 할까요?’가 당선되면서 계속해서 희곡을 쓰고 있다.

안산문화재단 ASAC창작희곡공모는 희곡작가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대회다. 2013년 처음 시작해 2016년 격년제가 됐다. 당선작 상금은 2천만 원이다. 2017년 제4회 공모제에는 총 44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402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우리음악으로 안산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단에 문화예술 꽃을 피우면, 시민의 삶도 꽃이 필 것”

1996년 10월 창단된 안산시립국악단(이하 시립국악단)은 정기공연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국악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공연 등 전통음악의 계승과 창작음악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립국악단만의 멋진 앙상블 연주로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해외로 널리 알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미 손꼽히는 국악관현악단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시립국악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음악, 한국 창작음악의 대중화를 선도해 가는 데에는 현재 시립국악단을 이끌고 있는 임상규 상임지휘자의 역할이 크다. 2018년 새해 첫 공연으로 신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임 지휘자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만났다.

Q.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안산은 산업단지와 함께 단원구, 상록구라는 훌륭한 브랜드가 있다. 산업도시와 단원구·상록구라는 지명, 이 두 가지가 안산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성호 이익 선생, 최용신 선생 등 좋은 문화유산이 많은데 더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 시립국악단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준비한 첫 정기연주회 주제가 ‘안산, 음악으로 꽃을 피우다’였다. 산업도시, 성호 이익, 최용신, 단원 김홍도, 시화호 등 안산을 상징하는 대표 주제로 만들어진 곡을 올리며 안산만의 브랜드를 담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상록수 어린이 뮤지컬, 둔배미 놀이 등 지역문화를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풍물패 ‘터주’나 안산합창단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간다. 그것이 안산의 문화가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결국 시민의 삶도 꽃이 필 것이라 생각한다.

Q.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활동이 있다면?

시립국악단 창단 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활동이 교실음악회이다. 초등학교에 찾아가 1년에 25회~50회의 수업을 진행한다. ‘보고 듣고 즐기고’라는 구성에 맞게 악기에 대해 설명하고 들려주고 즐길 수 있게 하며, 악기도 직접 만져보고 연주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교과서에 우리음악이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우리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안산에 사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음악에 대해 알게 하자는 취지로 꼭 이어오고 있다.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무척 좋아하신다. 저도 어릴 때 리코더를 자주 불었다. 그러다 한국피리를 접하며 자연스레 국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피리로 국립관현악단에서 활동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음악을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Q. 지휘자의 역할을 요약한다면?

운동선수에게 감독이, 연극무대

에 연출가가 있듯이 여러 가지 악기가 하나

의 합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악기마다 예

술적인 영혼을 불어넣고 꽃을 피워줄 무엇이 필요하다. 지휘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따라주는 단원들에게 감사하고 시립국악단을 사랑해주는 안산시민들께 감사하다.

임상규 상임지휘자는 2009년부터 안산시립국악단을 이끌고 있으며 국악의 대부 한성준 옹과 88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 살풀이춤 공연을 펼친 인간문화재故한영숙 선생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문 의 : 안산시립국악단(031-481-4097)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김진국

녹색소비생활 캠페인①

생활속에서 CO₂ 줄이기

1. 내복입고, 적정실내온도 유지하기
2. 올바른 운전습관 유지하기
3. 1등급에너지효율제품, 저탄소마크제품, 친환경제품사용하기
4.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기
5. 나무심고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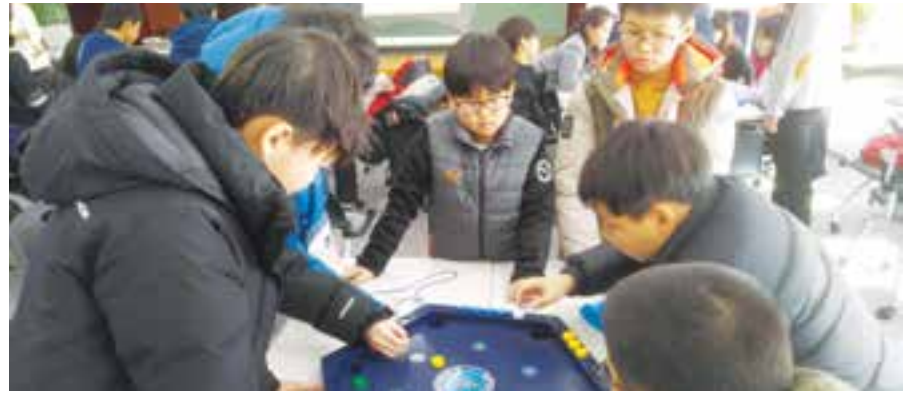
“우리는 도서관에서 올림픽정신 배워요” 안산시 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안산시에는 공공도서관 14개와 공립작은도서관 15개를 포함해 모두 29개의 도서관이 있다. 안산시 전체 행정동의 수 25개를 넘는다. 특히, 동네마다 자리한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고 있다.

각 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96회 겨울독서교실’을 열었다. 감골도서관을 포함한 상록구 11개 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는 ‘평창, 꿈을 향해 달리다’를 주제로, 관산도서관과 단원구 7개 도서관에서는 ‘열두 띠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역사와 종목 등에 대해 알아본 후 클레이 아트로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캐릭터를 만들고, 평창올림픽 공식 구호인 ‘아리아리’를 넣어 희망문구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단원구 도서관에서는 북아트, 독서토론, 열두 동물 연극놀이, 글쓰기, 클레이로 열두 동물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10간(干)과 12지(支)로 황금 개띠가 되는 원리에 대해 공부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렸다. 첫날 모둠원들이 모여 응원피켓을 만들고 메달을 디자인했으며, 둘째 날에는 보드게임을 하며 즐겁게 보냈다.

이와 관련 보드게임 강사는 “올림픽정신을 떠올리며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배려하고 즐기면서 놀이의 고수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시아 학생(초지초 6)은 “보드게임을 하면서 1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모둠으로 문장을 완성한 팻말을 보며 선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문 의 : 중앙도서관(031-481-2702), 감골도서관(031-481-266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감골도서관, ‘마음을 치유하는 책읽기’ 운영 그림책으로 마음의 문을 열다



감골도서관은 1월부터 2월까지 ‘마음을 치유하는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2년여의 과정을 거쳐 감골도서관에서 배출한 독서심리상담사들을 지역 내 도서관과 학교,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15곳에 배치해 진행한다.

독서심리상담사는 사회에서 갈등과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심리학적 방법으로 완화시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책을 읽어주며, 책 속에 투영된 마음을 읽고 받아주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들의 닫혔던 마음을 열도록 도와준다.

1월 15일, 브니엘광지역아동센터에서는 김오숙 상담사가 ‘자기 이해와 사회성 향상’을 주제로 아이들을 만나 ‘들으면 행복해지는 단어, 불렸을 때 기분 좋은 이름’ 등 별칭을 짓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마음을 읽고 소통하기 위한 별칭 짓기를 마친 후에는 ‘문제가 생겼어요’라는 가족이야기를 읽고 직접 손수건을 꾸미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 박옥선 담당자는 “5년 전부터 감골도서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꾸준히 열고 있다.”고 소개하며 “책읽기와 듣기 훈련이 안 되어 있던 아이들이 책에 집중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꺼내고, 친구에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게 된다.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세 아이 육아를 하며 공허함이 밀려오던 시기에 감골도서관 독서심리상담사 양성과정에 참여했다.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돌 지난 셋째아이한테 드는 죄책감으로 많이 울었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동료들과 그림책 덕분에 마음을 열게 됐고,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책이 주는 치유의 힘을 확실하게 됐다. 심리상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도 진학했다.”며 “말과 행동 속에 숨은 마음을 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독서심리상담사들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사각지대를 살피며 미술심리, 푸드아트테라피, 진로상담 등 다양한 분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 문 의 : 감골도서관(031-481-266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대부도에서 경험하는 자유학년제 ②

대부도 지역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동아리 활동



골프·승마·종이공예 등 대부도 내 기관·업체와 협약

안산시라는 도시에 속해 있지만 실제 안산시내까지 가려면 바다 건너 30km 이상을 달려야 하는, 도서 벽지에 위치한 대부중학교. 대부도에 살며 대부종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수많은 축제와 교육적 행사들은 ‘남의 동네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도 지역 곳곳에 산재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학생 체험 중심 동아리 활동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교부금을 활용, 학생들의 가정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연간 동아리활동 체험비를 대부분 해결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이 희망하는 다양한 맞춤형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인원 골프반(NCC골프클럽), 호연지기 승마반(해맞이 승마클럽), 종이공예반(종이미술관), 친환경비누만들기(선감어촌체험마을), 드로잉아트북제작반(경기창작센터), 단편영화제작반(경기창작센터) 등 대부도 지역 내에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이나 업체를 발굴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동 거리 및 시간까지 단축시켰다. 이를 위해 45인승 버스 5대를 대여했다. 골프 동아리반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추천해 선택한 골프인데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평소 연습할 때는 잘 안되던 공이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취미로 연습하고 싶다.”고 말했다.

드로잉아트북제작반 학생들은 “공에 먹물을 묻혀 굴러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검정 테이프를 조금씩 떼어서 드로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며 “새로운 창작의 세계가 즐거웠다.”고 덧붙였다. 대부중 관계자는 “안산의 보물섬 대부도에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대부도 지역의 우수한 교육적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며 학생으로서의 행복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 의 : 대부중학교(032-886-427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한 눈에 펼쳐보는 올해의 행사소식

미리보기는 재밌습니다,
미리보기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리보기는 준비를 돕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 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01

JANUARY



무술(戊戌)년을 맞이하며

창물엿던 창유년의 붉은 달을 보내고
무술년의 황금 개를 맞아들입니다.

새로움이 주는 반가움만큼
설레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8

02

FEBRUARY



2018 안산의 책 선포식

- ◇ 일시 : 2018. 2. 22.(목)
- ◇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 내용 : 기념식, 안산의 책 선포, 북콘서트 등

03

MARCH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 일시 : 2018. 3. 1.(목) 10:00
- ◇ 장소 : 안산초등학교
- ◇ 내용 : 기념식, 기념공연 등



04

APRIL

2018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 ◇ 일시 : 2018. 4. 5.(목)
- ◇ 장소 : 관내 도시숲
- ◇ 내용 : 식재 기반 조성 및 수목식재
주변 수목 전정 및 제초 등

세월호참사 4주기 추모식

- ◇ 일시 : 2018. 4. 16.(월)
- ◇ 장소 : 화랑유원지
- ◇ 내용 : 묵념, 추모사, 추모공연, 분향 및 헌화 등



05

MAY



2018 안산국제거리축제

- ◇ 일시 : 2018. 5. 5.(토) ~ 5. 7.(월)
- ◇ 장소 : 안산문화광장 및 안산시 일대
- ◇ 내용 : 거리예술공연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 ◇ 일시 : 2018. 5. 5.(토) 10:00~16:00
- ◇ 장소 : 호수공원
- ◇ 내용 : 기념식, 축하공연, 가족참여체험 프로그램 등

제22회 성호문화제

- ◇ 일시 : 2018. 5. 26.(토) ~ 5. 27.(일) 11:00
- ◇ 장소 : 성호공원 일원
- ◇ 내용 : 송모제, 학술제, 전통문화체험, 공연행사

06

JUNE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 ◇ 일시 : 2018. 6. 6.(수) 10:00
- ◇ 장소 : 현충탑(원곡공원내)
- ◇ 내용 :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등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 ◇ 일시 : 2018. 6. 7.(목) 19:3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해돋이극장)
- ◇ 내용 : 합창공연

99 일제에 항거해 전 국민이 태극기를 들었던 3.1절, 올해가 99주년입니다.

96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운 지 96년이 되는 해입니다.

33 안산이라는 천년고도가 시로 승격하고 가진 첫 시민의 날이 33년 전입니다.

22 실학사상의 대가 성호 이익 선생을 기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22년째입니다.



07

JULY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 일시 : 2018. 7. 3.(화)
- ◇ 장소 : 문화예술의전당(달맞이극장)
- ◇ 내용 : 기념식, 유공자표창,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

08

AUGUST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 ◇ 일시 : 2018. 8. 15.(수) 10:0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달맞이극장)
- ◇ 내용 : 경축식, 경축공연 등

에너지의날 기념식

- ◇ 일시 : 2018. 8. 22.(수) 18:00~21:00
- ◇ 장소 : 안산문화광장
- ◇ 내용 : 에너지절약캠페인, 에너지유공자표창 등



09

SEPTEMBER

2018 제5회

안산 World Peace 자전거 대축전

- ◇ 일시 : 2018. 9. 2.(일)
- ◇ 장소 : 호수공원
- ◇ 내용 : 비경쟁 퍼레이드, 공연, 부대행사 등

2018 별망성예술제

- ◇ 일시 : 2018. 9. 8.(토) ~ 9. 9.(일)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축제의광장)
- ◇ 내용 : 전시,공연 등 예술행사, 학생미술실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부대행사

제6회 상록수문화제

- ◇ 일시 : 2018. 9. 15.(토)
- ◇ 장소 : 최용신기념관, 상록수공원, 샘골로 일대
- ◇ 내용 : 기념음악회, 최용신교육박람회 거리퍼레이드 등

건강체험 어울림한마당행사

- ◇ 일시 : 2018. 9. 16.(일) 12:00 ~ 16:00
- ◇ 장소 : 안산문화광장
- ◇ 내용 : 주제별 건강체험

10

OCTOBER

제33회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

- ◇ 일시 : 2018. 10. 2.(화) 10:0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해돋이극장)
- ◇ 내용 : 기념식, 시상, 축하공연 등

2018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

- ◇ 일시 : 2018. 10. 12.(금) ~ 10. 13.(토)
- ◇ 장소 : 안산문화광장(예정)
- ◇ 내용 : 마을만들기 성과 공유

안산음성문화예술제

- ◇ 일시 : 2018. 10. 13.(토) 10:00
- ◇ 장소 : 수암봉 공영주차장 일원
- ◇ 내용 : 어가행렬, 휘호대회, 공연 등

2018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축제

- ◇ 일시 : 2018. 10. 20.(토) ~ 10. 21.(일)
- ◇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내
- ◇ 내용 : 체험 및 전시부스, 3D 및 드론페스티벌 등

11

NOVEMBER

젯머리 성황제

- ◇ 일시 : 2018. 11. 8.(목) 11:00
- ◇ 장소 : 젯머리 성황당
- ◇ 내용 : 유가재현 및 성황제

별망성 산신제

- ◇ 일시 : 2018. 11. 10.(토) 12:00
- ◇ 장소 : 별망성지
- ◇ 내용 : 산신제

팔곡당산 산신제

- ◇ 일시 : 2018. 11. 13. (화) 12:00
- ◇ 장소 : 팔곡당산 산신당
- ◇ 내용 : 산지당 천신제 및 산신제

시립국악단 55회 정기연주회

- ◇ 일시 : 2018. 11. 15.(목) 19:3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해돋이극장)
- ◇ 내용 : 전통음악 및 국악관현악

12

DECEMBER



송년음악회

- ◇ 일시 : 2018. 12. 27.(목)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해돋이극장)
- ◇ 내용 : 안산시립예술단 및 협연자 공연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 ◇ 일시 : 2018. 12. 31.(월) 23:30
- ◇ 장소 : 화랑유원지
- ◇ 내용 : 식전공연, 타종, 달집점화 등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자매결연 도시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2018정선고드름축제

정선에 오면 빙(氷)긋(Good)! 방긋!
2018.2.7.~2.25 정선읍 조양강 제2교일원에서 개최

정선읍 조양강 일원에서 열리는 정선지역의 유일한 겨울축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정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올림픽 시기에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보편적인 겨울프로그램은 물론 정선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개최한다. 축제는 정선아리랑을 배경으로 길놀이로 시작으로 군무와 사물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지는 정선의 소리극 한마당으로 시작한다. 특히 2월7일 오후 6시에는 정선군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 성화봉송 축하행사도 병행한다. 또한 축제장에는 날마다 아리랑 및 각종 공연이 펼쳐지며 대형 눈썰매장, 얼음놀이터, 얼음낚시터, 맨손 송어잡이, 고드름 주제, 갈대숲 고드름정원, 산촌문화체험관, 공연예술전시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장 주변 먹거리장터에는 정선의 토속음식인 부침개, 전병, 수수부꾸미, 매운탕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골라먹는 재미도 만끽하면 된다.



레일바이크

기차를 타고 철길 위를 달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런 ‘철길 위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선의 레일바이크만한 것이 없다. 레일바이크는 언뜻 보면 몸체가 무겁고 커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페달을 밟아보면 생각했던 것 보다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레일바이크는 시속 10~30km까지 속도를 낸다. 하지만 주변 경치를 넉넉하게 감상하려면 시속 15km 정도로 달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정선레일바이크는 구절리역에서 출발하며 종착지는 아우라지 역이다. 먼저 구절리역 인근에 있는 노추산의 비경을 보고 오장폭포를 구경한 뒤 구절리역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아우라지로 출발한다. 레일바이크를 타기 전에 구절리역 안에 있는 ‘여치의 꿈’ 카페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구절리역을 떠난 레일바이크는 송천계곡을 지나간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송천계곡의 얼음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눈 덮인 숲, 강을 따라 난 철길 양쪽의 기암절벽, 그리고 농촌 겨울 풍경 사이로 달리는 기분은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우라지역까지 왔다면 출발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정선여행 5종 캐릭터인 ‘와와군과 친구들’로 귀엽게 디자인한 풍경열차를 타고 미처 보지 못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개미 모양을 한 펜션에서 긴긴 겨울밤을 지내는 것도 색다른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우라지

아직도 ‘아우라지’에는 만나지 못한 두 남녀의 사랑이 흐른다. ‘정선’하면 ‘아우라지’가 먼저 떠오르고 ‘아우라지’하면 대뜸 정선이 떠오른다. 그만큼 아우라지는 정선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곳이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이 노래 가사는 옛날 아우라지 양쪽에 살던 젊은 총각과 아름다운 처녀간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여름철 장마로 아우라지의 물이 불어나자 며칠을 서로 만나지 못한 애절한 마음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정선아리랑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우라지는 여량면 여량리에 위치해 있다. 예부터 강과 산이 수려한 곳으로 유명하다. 평창군 도암면에서 발원해 흐르고 있는 구절쪽의 송천과 삼척군 하장면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는 임계쪽의 골지천이 합류되어 “어우러진다”해서 아우라지라 불린다. 이러한 자연적인 배경 때문에 송천을 양수, 골지천을 음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름 장마 때 양수가 많으면 장마가 끝난다는 옛 말이 전해오고 있다. 또한 이곳은 남한강 1천리길 물 길 따라 목재를 운반하던 유명한 뗏목시발지점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모여든 뗏꾼들의 아라리 소리가 넘쳐나던 곳이다.

◇ 문 의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033-560-2224)





기획전시 '이면탐구자' 시각예술가 10인의 눈으로,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다



예술가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삶의 뒷모습을 보여준다. 평범한 풍경과 일상 속, 개인과 공동체의 겉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깊숙이 파고들어 현상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 이면을 예술가의 눈과 귀로 다시 감각할 때, 삶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빛깔을 띤다.

경기도미술관은 오는 3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이면탐구자' 전시를 연다.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시각예술가 10인의 신작 70여점으로 꾸몄다. 참여 작가들은 삶과 죽음,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 등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여러 면모를 깊이

사유하고 내면화해 표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승복 작가의 '풍경이 된 몸'은 배나무 과수원 안에 숨겨져 있던 버려진 무덤을 비춘다. 커다란 스크린 화면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과수원의 풍경과 대비된 무연고 무덤들이 삶의 역설적인 순간을 만든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진 풍경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순리에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전지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살아왔던 동네의 모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록한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며 그린 만화와 흑백 드로잉에는 낡고 빛바랜 동네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있다. 다 쓰러져가는 집, 오래된 시멘트 계단, 주차금지 푯말 등 작가가 '굳이 수집하려던 것들'에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이야기가 위트 있게 담겨있다. 재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시에서 점점 퇴락해 잊혀져가는 것들이 작가의 시선과 손길로 새롭게 발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구부요밴드는 도시 생활자로서 느끼는 불안의 감각을 폐자재를 소재로 키네스틱 조각과 사운드를 활용해 드러낸다. 죽어있는 듯 고즈넉한 풍경의 이면에는 요동하는 삶의 풍경을 반영하는 괴물이 숨겨져 있다. 도시를 탐색하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작가의 정서적 반응이 녹아있다.

공간 자체에 그림을 그리는 홍정욱 작가는 전시공간을 캔버스 삼아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점, 선, 면, 색과 같은 회화의 기본요소와 삼각형, 사각형, 원이 펼쳐진 작품은 회화의 영역을 확장한다. LED조명이 설치된 작품 뒷면에 색을 입혀 은은하게 전시장 벽에 스며들면서 공간을 파동하는 빛은 '외양 너머의 실재, 현상 너머의 실체'를 탐구하는 작가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전시장 마지막에 만나는 '탐구자의 방'은 참여자들이 '이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다. 자신의 뒷모습을 그리며 개인의 이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고, 지도 어플을 이용해 공동체의 이면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다.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 gmoma.ggcf.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제4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인(in) 안산' 성료 공공극장 상주단체 우수작품 한 자리... "최고의 경험"



경기도 내 문화예술기관 · 공연장 상주단체의 우수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공연하는 '제4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가 1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경기공연예술페스타'는 경기도 내 공공극장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공연들을 소개하며 더 나아가 도내 예술단체들의 작품 유통을 적극 추진하는 장이다.

2015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안양과 구리에서 연이어 개최되며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2018년에는 안산문화재단이 유치했다. 이에 따라 나흘 동안 인형극, 발레, 무용, 음악극 등 다양한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가장 주목받았던 '베스트 컬렉션'

한 해 동안 공연되었던 상주단체들의 초연 · 기획 공연들 중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준 4개 단체의 공연이 '베스트 컬렉션'으로 선정됐다.

1월 24일(수) 페스타의 첫 시작은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인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이하 엠비규어스)'가 열었다. 엠비규어스는 상주 이후 3년 동안 연속 베스트컬렉션에 선정된 단체

로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김보람 · 안영준의 공동 안무로 화제를 모은 '던 두(Don't Do)'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안에서 자유롭기 위한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한다.

25일(목)에는 직장인의 하루를 마임과 인형과 오브제, 음악으로 표현한 '예술무대 산'의 '그의 하루'가 펼쳐졌다. 대사는 없지만, 온전히 우리의 삶을 투영해내는 인형의 모습은 직장인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았다.

26일(금)은 '서울발레시어터'와 '군포프라임필하모닉'의 공동 협업 작품인 '빨간 구두-영원의 춤'이 무대에 올랐다. 동화 '빨간 구두'에서 인간의 욕망을 재해석해낸 작품으로, 현대무용가로 각광받는 차진엽과 팀프(TMP) 음악감독 최우정이 창작진으로 참여했다.

마지막 날인 27일(토)에는 연출가 고선웅이 이끄는 극작소 '마방진'의 '토끼전'이 펼쳐졌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음악극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국악을 더해 경쾌하고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26일(금) 무료로 진행된 '쇼케이스' 무대에서는 주목받는 단체들의 공연 3편이 90분간 펼쳐졌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머리 앤'을 '결판여고 연극반' 무대로 옮겨 신나는 뮤지컬로 꾸며낸 '극단 결판'의 뮤지컬 '앤ANNE', 안무가 최진수를 주축으로 한 발레예술단체 '에스발레 그룹(S Ballet Group)'의 뛰어난 예술가의 비극적 삶을 그린 '라 다나이드(La Danaide)', 그리고 평생 애니메이션 주제곡만 불렀던 가수를 주인공으로 한 독특한 이야기를 그려낸 '극단 불의 전차'의 연극 '꽃불'까지 색다른 공연들이 한 무대에서 펼쳐졌다.

이밖에도 공연중매프로젝트 '아트마켓'과 공연장 상설 전시가 열렸으며, 아트마켓에는 공연팀 포함 경기지역 16개 공연단체가 참여해 성과와 의미를 나눴다.

◇ 문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031-481-400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그리너스FC

전지훈련 출정과 함께 시즌권 구매 릴레이 시작

안산그리너스FC(이하 안산)가 1월 8일 '2018 안산시 체육단체 단배식' 행사에서 선수단 전지훈련 출정과 함께 시즌권 구매 릴레이를 시작했다.

선수단은 지난 3일 새해 첫 소집을 시작으로 8일 남해로 전지훈련을 떠나며 새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남해에서 31일까지 1차 전지훈련을 마무리 지은 후 바로 창원으로 넘어가 다음 달 20일까지 2차 전지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이 대거 이뤄진 만큼 이흥실 감독은 출정 전 혹독한 전지훈련 일정을 예고했다.

올 시즌 안산의 입장권 정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관중들의 몰입도와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N(북), S(남)석을 폐쇄하고 E(동)석과 W(서)석만을 운영한다. 달라진 점은 기존에 없었던 W석 시즌권이 새로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8시즌 안산의 시즌권은 좌석별, 연령별로 구성된 7종과 티켓북 1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보름여 만에 완판 되었던 테이블석 개념의 '골드존(GOLD ZONE)' 시즌권과 어른·청소년·어린이로 나뉜 W석의 '울프존(WOLF ZONE)' 시즌권, 그리고 E석의 '그린존(GREEN ZONE)' 시즌권으로 판매된다. 단체관람이나 친구·가족·연인들이 구매하기 좋은 티켓북은 지난해 20매에서 올해는 10매로 구성되어 판매된다.

시즌권 구매는 구단 사무국(031-480-2002)이나 티켓링크(ticketlink.co.kr)를 통해 가능하며, 구단 홈페이지(greenersfc.com)을 통해 자세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문 의 : 안산그리너스FC 사무국(031-480-2002)

안산그리너스FC, 라이베리아 출신 '코네' 영입 네덜란드에서 11골 기록... 전설 '조지 웨아'를 꿈꾸다

안산그리너스FC(이하 안산)가 올 시즌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라이베리아 공격수 출신의 세쿠 코네(Seku Conneh, 이하 코네)를 영입했다.

코네는 AS모나코와 파리 생제르망, AC밀란 등을 거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축구 대통령 '조지 웨아'의 나라인 아프리카 서남부 국가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다. 이후 성장기 대부분을 네덜란드에서 보내며 아약스 유소년 아카데미를 거치기도 했다.

2014년 코네는 네덜란드 2부 리그인 포르튀나 시타르트에서 프로 무대 데뷔를 하였고 다음해 같은 리그의 FC오스로 이적하며, 네덜란드 리그에서 총 45경기를 출전, 11골을 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라이베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선발되어,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 코트디부아르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명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2016년 미국 유나이티드 사커 리그(USL)의 베들레헴스틸 FC로 이적한 코네는 첫 시즌 부상으로 출전시간이 다소 적었으나, 복귀 후 18



경기에서 출전하며 2골을 기록했다. 2017시즌까지 총 44경기에서 출전하여 12골의 활약을 보이며 올 시즌 안산에 합류하게 되었다.

"하루 빨리 안산 팬들 앞에서 나의 플레이를 보여 주고 싶다"며 입단 소감을 밝힌 코네는 전형적인 9번 공격수로, 빠른 스피드와 안정된 발밀 출

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큰 신장을 이용한 제공권이 우수하고, 양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리킥 능력 또한 뛰어나다.

안산의 에이스 라울에 대한 물음에 "엄청난 스피드와 빠른 돌파로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넣었던 좋은 선수로 알고 있다.

올 시즌 그와의 호흡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나이가 더 어리니깐 좀 더 공을 나에게 많이 주었으면 한다."는 농담 섞인 말도 전했다

◇ 문 의 : 안산그리너스FC 사무국(031-480-2002)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행들이 1월 19일 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을 방문했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 방문

‘현장의 날’ 행사…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방안 협의

안산시의회는 1월 19일 새해 첫 ‘현장의 날’을 맞아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을 방문,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민근 의장과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홍순목, 김진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 노인장애인과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도 함께 해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6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장애인 27명 포함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청 방식의 자동차 와이퍼 포장이 주력 업무이지만, 최근에는 작업 물량 감소와 지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작업장을 찾은 의원들은 생산 라인과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둘러본 뒤 현장 간담회를 열어 작업장 측의 운영상 애로점을 파악하고 시 담당부서와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의원들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작업장의 생산성 데이터 구축과 홍보 강화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는 방안을 주문하는 한편 작업장에 적합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 담당 부서와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무자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통근버스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작업장 측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에 발맞춰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권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민근 의장은 “이번 방문은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현장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한 만큼 정책이나 예산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오는 2월 2일까지 개최… ‘2018년도 업무보고’ 등 심의



사진은 1월 22일 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의 모습

안산시의회는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8년도 업무보고 안건 등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제2상임위원실에서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제246회 임시회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본회의 2회, 상임위원회 3회를 개최해 ‘안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한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는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동수·홍순목 의원을 선임하고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에 의원님들의 지혜를 담아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안산시가 한 해 동안 진행할 사업 전반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시 집행부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환경재단 & 안산교육지원청

탄소사냥대회 우수학교 발표… 성포초, 안산중앙초, 안산초 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과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은 학교(초·중·고등학교 대상) 전기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탄소 사냥대회를 완료하고, 우수학교를 발표했다.

탄소사냥대회에 참가한 21개교 중 에너지 절약에 큰 성과를 낸 성포초(상금 100만원), 안산중앙초(상금 50만원), 안산초등학교(상금 30만원)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안산

환경재단은 시상금을 안산교육지원청은 교육장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세 학교는 재단에서 인증하는 환경인증제에서 그린등급을 획득했다.

탄소사냥대회는 아이 스마트(i-Smart, 전력소비컨설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력소비 자료를 분석한 대기전력(2017년 휴일 51일) 소비량(kWh) 및 연간(2016년~2017년) 전력 소비량을 측정해 전력 절감량이 많은 순으로 평가했다.

안산환경재단은 탄소사냥대회 우수학교에 대해 시상한 후 열린 교장·교감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의 친환경 교육 내용, 교육의 어려움 및 안산 에코스쿨의 기대 등 의견을 청취했다.

1위를 차지한 성포초등학교(교장 이황순)는 전력 절약 외에 인근 안산천에서의 생태교육이 돋보였다. 특히 교육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역의 생태를 함께 공부하고 결과

를 공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초등학교(교장 한명희)는 학교건물의 단열을 위하여 외벽을 단장했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기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안산초등학교(교장 정성조)는 목재를 활용하여 친환경 놀이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빗물을 저장하여 농업 교육에 활용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수상 초등학교들은 학교 환경과 교육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윤관 대표이사는 “학교마다 차별화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 학교의 친환경 교육과정이 교육 발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재단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22)

한양대학교 ERICA 사회교육원 교육 과정 안내



봄학기 수강생 모집

	1학기 골프과정	봄학기 역량과정
강의기간	2.26.(월)~8.19.(일)<24주>	3.5.(월)~5.26.(금)<12주>
등록기간	2.5.(월)~2.19.(월)	2.5.(월)~2.27.(화)
등록방법	수강신청	홈페이지(cec.hanyang.ac.kr) 내 수강신청
	인터넷 전자결제	홈페이지(cec.hanyang.ac.kr) 내 신청 후 결제
	계좌이체	신한100-014-382566/ 예금주: 사회교육원 (입금자명:신청자이름/생년월일)
교육장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사회교육원(게스트하우스 2층)	
상담문의	상담전화 : 031-400-5843~6, 5850 사회교육원 행정팀 카카오톡상담 : ID(한양대학교ERICA사회교육원)추가 후 상담 상담가능시간 : 평일 10:00~20: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안산단원서 호수지구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실시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심현규) 호수지구대(대장 박종필)는 1월 10일 오후 9시부터 초지2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지역주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란 경찰이 순찰장소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해 펼쳤던 기존 순찰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 순찰활동을 말한다. 박종필 대장은 지역 내 협력단체들의 관심과 협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순찰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단원경찰서호수지구대(031-439-7112)



녹색소비생활 캠페인②

즐거운 설명절, 지혜로운 녹색생활 실천하기

1. 교통난 해소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2.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하기
3. 명절선물은 로컬푸드 또는 친환경제품으로 하기
4.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줄이기
5. 성묘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이예나
(석수중학교)

석수중학교 '석수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열어

지난해 12월 22일 안산문화의예술회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석수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석수 윈드(wind) 오케스트라'는 석수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관악기, 즉,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본, 트럼펫, 튜바 등과 타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이다.

3년 전에 처음으로 창단이 되고, 지난 봄에 열린 중학교 오케스트라 대회에서 관악부분 1위를 차지한 석수 윈드 오케스트라는 올해로 2번째 정기연주회를 맞았다. 그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가족들과 선생님들, 친구들에게 연주회를 통해 보여줬다.

'석수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많은 관객들이 같이 즐기고 공감 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 관객과 함께 노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인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과 '클레이머 카니발 (A Klezmer Carnival)', '라데츠키 행진곡 (Radetzky March)' 등을 연주했다.

그 외 학생들인 '나도 뮤지션' 학생들과(나도 뮤지션 :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하는 예술 프로그램의 한 종류) 1학년



7반 학생들 모두가 한번쯤 들어 봤을 만한 음악을 들려주었다. '나도 뮤지션' 학생들은 '걱정 말아요 그대'와 '하늘 바라기'를 기타, 피아노, 카혼으로 연주를 했다. 1학년 7반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합창을 했다.

이렇게 '석수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무대 하나 하나는 학생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관중들은 더욱더 좋은 반응 보였고 무대를 꾸민 학생들은 다른 연주회보다 더 의미 있다고 하였다.

박한별 (석수중) 학생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연주회가 되어서 좋았다." 라고 말했고, 홍하은 학생(석수중)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을 다양한 악기 소리와 합창과 함께 들어서 느낌이 새로웠다." 라고 말했다.

장아영
(성안중학교)

성안중학교 '성꽃제'로 모두가 하나 되다



성안중학교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과 28일 총 이틀간 성지관(체육관)에서 성꽃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합창 · 댄스 경연대회 형식이었으며, 27일에는 1학년, 28일 오전에는 3학년, 오후에는 2학년 순으로 진행되었다.

1학년은 K-pop, 2학년은 팝송, 3학년은 댄스를 하였는데,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부터 영화 OST, 캐롤송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로 무대를 선보여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방과 후에 열심히 연습하던 바이올린반과 매 행사마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는 댄스부, 밴드부가 축하 공연을 하여 더욱 열기를 띄웠다. 추가로 사전에 신청을 했던 장기자랑 참가자들은 성대모사, 듀엣 등 교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능들을 보여줬다.

시상은 당일 날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 바로 진행됐으며, 명예의 최우수상은 1학년 2반, 2학년 3반, 3학년 10반이 차지했다.

김희진 교사(2학년 담임교사)는 "한 해를 같이 보낸 학급

친구들끼리 협동하여 무대를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안중 학생들은 축제 당일 날 걸려있던 슬로건 문구인 '꿈과 끼를 펼치는 우리들의 축제'에 걸맞게 자신들의 소중한 꿈과 다재다능한 끼들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성꽃제를 마치고서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2학년 9반 박지은 학생은 "친구들, 선생님과 좋은 추억을 쌓아서 좋았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고, 2학년 4반 김아현 학생은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지쳐있던 시간들을 잊고 다함께 즐길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2학년 4반 강다현 학생은 "좋은 시간이었지만 경연대회만 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조금 있다. 운동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늘려 좀 더 축제 분위기가 나는 성꽃제가 됐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전성호
(양지중학교)

양지중, 예절교육

떡만들기와 다례교육으로 배우는 예절

2017년 12월 21일 양지중에 예절교육이 찾아왔다. 이날 예절교육의 주제는 '전통 예절과 다례'. 1교시에는 '떡만들기'가 2교시에는 '다례교육'이 진행됐다.

1교시 떡만들기 수업에서는 준비된 백설기에 소를 넣고 모양을 내며 자기만의 백설기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지루해 했지만 점차 떡 만드는 재미에 빠져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다.

2교시 진행된 다례교육시간. 다례란 차를 다릴 때 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라는 뜻이다. 다례 선생님은 "차를 따를 때에는 차 주전자의 뚜껑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서 찻잔에 따라야 하고 차를 마실 때에는 왼손에 찻잔을 놓고 가슴 앞에 놓은 다음 오른손으로 찻잔을 잡아서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다례에 맞게 차를 따르고 떡과 함께 마셨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밖에



못해서 아쉬워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1학년 2반 신준하 학생은 "처음에는 예절교육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아서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반대로 너무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여서 정말 좋았다." 라고 말했다. 또 홍서연 학생은 "떡을 내 손으로 만들어 먹고 차도 같이 마셔서 정말 좋았다. 선생님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힘든 것이 없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정말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반짝 반짝 빛나는 우리들의 꿈

해양중 동아리발표 꿈발표 대회 열다



정하음
(해양중학교)

지난 1월 3일 안산해양중학교 강당에서 동아리발표와 꿈 발표 대회가 진행됐다. 4,5,6교시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동아리 발표부터 시작됐다.

동아리발표는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년들이 수요일 오후 동아리 수업시간에 진행한 동아리 활동을 발표한 것이다. '연극부 동아리' 아이들의 연극과 '나도 음악가 동아리' 아이들의 랩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연극부 아이들 16명은 일년 내내 연습한 연극을 1학년 전체 아이들 앞에서 선보였다. 이어 '나도 음악가 동아리' 활동을 했던 4명의 학생들은, 'N분의 1'이라는 노래를 불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 공연을 본 1학년 김윤아 학생은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라며 즐거워했다.

4교시 동아리 발표가 끝나고 5,6교시에는 꿈 발표 대회가 진행됐다. 꿈 발표 대회는 3분 이내의 자신의 꿈과 계기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 하는 것이다. 이날 꿈 발표대회는 본선 경기로 각반에서 예선을 통과한 18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별한 꿈을 발표했다.

18명의 학생들의 꿈은 모두 특별했지만 '멋쟁이'라는 꿈을 가진 학생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꿈이 '멋쟁이'인 이현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물어볼 때 항상 고민했지만 이렇게 본선까지 와서 1학년 전교생에게 내 꿈을 발표하게 되어 좋았다."라며 "선생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회를 보던 1학년 홍수민 학생은 "내 친구들에게 저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나마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꿈들이 많아서 신기했다." 라고 말했다. 대회를 준비한 이행자 진로교사는 "아직 중학생이라 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뿌듯하다"고 말했다.

2017년 원일중학교의 마지막 축제

원일 꿈 · 끼로 채움 발표회를 소개합니다!



최혜원
(원일중학교)

2017년 12월의 춥고 한적한 어느 날 원일중학교 학생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어느 반은 함께 모여 춤추고 또 어느 반은 노래 부르며 연기하는 원일중학교 학생들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 바로 2017년 12월 26일, 27일, 28일에 진행되는 원일 꿈 · 끼로 채움 발표회를 준비 하고 있었다. 각 학년의 해당한 주제로 학급끼리 협동하여 무대를 만들어 발표하는 원일중학교의 2017년 마지막 행사이다.

1학년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주제로 26일 화요일에 합창대회, 2학년은 '원일 댄싱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27일 수요일에 댄스대회가 진행되었고, 3학년은 '뮤지컬로 바라 본 우리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28일 목요일 뮤지컬 대회로 원일 꿈 · 끼로 채움 발표회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2~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반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를 했다. 발표가 다 끝나고 학생들의 원일 꿈 · 끼로 채움 발표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원일중학교 1학년 6반 김유민 학생은 "합창대회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했지만 막상 하니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좋았고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추억을 쌓은 거 같아 기분이 좋다." 또 1학년 5반의 한송이 학생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평생 한번 뿐인 합창을 1학년 5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1학년 마지막 축제여서 더 잊을 수 없는 추억 같다." 1학년 합창대회에 보인 의견이다. 2학년 6반인 박지혜 학생은 "애들이랑 의견을 조정하고 연습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평소에 관심 없는 댄스라는 종목에 도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2학년 댄스 대회에 의견을 보았다.

원일 꿈 · 끼로 채움 발표회는 각 학년마다 우수한 성적을 뽐내는 세반에게 상금을 걸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1학년의 1등은 1학년9반이 차지하였고 2학년의 1등은 7반, 3학년은 9반이 차지했다.



특별
기고

수많은 학교폭력예방대책, 현실에서는 무용지물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 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종합대책이 만들어졌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의 건수는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예전보다 더 저연령화, 지능화, 흉폭화됐다.

최근 부산의 여중생이 가해자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폭행당하고, 강릉 만취 여중생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인천 여중생이 학교 일진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충남 아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을 앓다가 투신자살한 전주의 한 여중생 사건도 있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퍼지면서 다시 이슈가 되었고,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국민청원'에 26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경찰청의 2013년 이후 5년 동안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사범은 6만3천429명으로 매년 1만4천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적발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구속은 649명에 그쳤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스웨덴은 학교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상담사를 채용하여 수시로 상담하도록 하

고, 간호사, 의사, 심리학자, 학생지킴이, 청년도우미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대처한다. 사후대처 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폭력을 목격한 방관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키바(KiVa)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수업에 컴퓨터 게임 등을 접목해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노르웨이의 제로(Zero)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이미 1989년에 인간행동과 학연구소를 설립했고 매년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도 실시한다. 또한 국가와 언론단체, 학교, 상담기관 등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에 대한 무관심, 가정교육의 붕괴,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에 있다. 이를 탈피하고 사랑, 봉사, 배려가 있는 인성중심의 교과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밥상머리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무관심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회와 국가에서는 경쟁 위주의 수업 방식을 탈피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과 문화체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전영태 경위(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주배경
주민투고

행복한 삶...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인생을 살면서 한번이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아니 살면서 행복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글썄요...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행복은 건강과 편안한 생활, 행복은 주변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제 인생은 행복을 찾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막내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진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본국을 떠나고 타국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만일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잘해드릴 것입니다.

과감하게 국제결혼을 결정하고 한국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결혼생활, 타국생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러운 날 중에도 행복한 날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왜 이럴까요?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대부분 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들이 왜 먼저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은 절대 오래 기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행복의 길이 끊어졌습니다. 3년 전 한국 남편과 혼인 파탄 후 별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있을 때 잘해' 노래를 듣고 싶네요. 지금까지 가끔 남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말없이 갑자기 떠나갔고 많이 섭섭했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만 마음고생 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 곳에 계신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한국에 왔고 씩씩한 아들도 태어났어요. 그것만 고마웠어요. 우리 인연이 짧

았지만 내 마음 속에 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 세상에서 우리 모자를 지켜주세요. 편안하게 쉬세요. 앞으로 나만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만 잘 살 거

예요. 혹시 나에 대해 원망한 것이 있다면 미안해요.

이별! 그래요, 있을 때 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있을 때 잘해!'

아들을 키우면서 속상한 것, 걱정하는 것, 열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럴 때 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생각하며 침착해 지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하면 바로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인생을 후회하는 것도 없고 행복한 날도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행복하기 위해 무조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특히 모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 가정을 만드는 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추억으로 덮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계속 튼튼하게 살 겁니다. 행복이 너무 많다고 겁나지 말고 그 때 그 때 많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 행복을 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 김수연



(*이 글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에서 발간한 '수기집'에 실린 것으로, 일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지만, 글쓴이의 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함.)

독자
투고

쌍둥이의 연애? 안산에 새생명이 넘치도록 태어났으면...



산부인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신께서 내려준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 첫 선을 보이는 곳 이니까.

이 기적을 접하다 보면 진

정 '생명 탄생'의 경외감과 감동을 몇

곱절 더 새롭게 느낄 때가 있다.

얼마 전 그날도 우리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다. 대부분의 쌍둥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아가를 조심스레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이때, 이 쌍둥이 형제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본 우리 간호사들은 “어머, 재들 좀 봐. 연애하는 것 같아”라며 까르르 웃었다. 10달이나 함께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아직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투정부리는 듯한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보는 사람들 모두 어쩔 줄 몰라 즐거워하며 박수치고 웃었다.

사실 원래 신생아들은 손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무조건 쥐고 보는 ‘원시반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역시 우연히 손에 닿은 형제의 손을 잡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원시반사’라는 의학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고결함과 우애 좋은 형제애라고 생각했다.

출산 때 맞는 무통주사도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앨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산모는 통증을 느끼는 속에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생

명을 세상에 내보낸다. 기적이라 할 만하다. 매일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느끼는 경외감과 생명탄생에 대한 환희는, 아가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만큼 크고 경이롭다.

시간이 흘러 경과가 좋아져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아가들을 엄마가 안아주며 모유를 물린다. 이때 아가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엄마 젖을 찾아 머리를 들이 밀며 힘껏 입술을 쪽쪽거린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젖 먹던 힘까지!’라는 구호는 참 잘 만들었다.

생명탄생의 순간을 가장 먼저 접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신의 축복이라 생각한다. 이제 새해인 2018년에도 우리 안산의 산부인과들이 바빠져서 정신없을 만큼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순자(단원구 대부황금로)

2018년 국가암검진 안내



- ◇ **검진대상** : 짝수년도 출생자
- ◇ **검진종류**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 국가 무료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병원)

◇ **문 의** : 단원보건소 (031-481-3469), 상록수보건소 (031-481-592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손씻기 체험관 대여 안내

단원보건소에서는 올바른 손씻기법 체험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손씻기 체험관 대여를 1월부터 시작하오니, 대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여기간** : 2018년 1월 ~ 6월
-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 ◇ **비 용** : 무료
- ◇ **내 용**
 - 형광표선 및 형광등을 이용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
 - 올바른 손씻기 관련 포스터 및 기타 홍보물품 배부

◇ **신청방법** : 대여신청서 팩스[☎031-481-3638] 송부

◇ **문 의** : 단원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031-481-3480)

2018 안산시 주말농장 분양 신청안내

- ◇ **접수기간** : 2월 8일(목, 10:00) ~ 2월 10일(토, 16:00)
- ◇ **신청대상** : 안산시민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자
- ◇ **접수방법**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 ◇ **준 비 물** : 신청서, 접수자 신분증, 세대주 증빙서류
- ◇ **문 의** : 안산시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시청 홈페이지 참고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자제 협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 중 2. 16.(금) ~ 2. 17.(토) 2일간은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연휴 기간 중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 수거** : 2. 15.(목), 2. 18.(일)

경기창작센터 안산시 입주작가 공개 모집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할 의욕 있고 유망한 안산시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합니다.

- ◇ **지원분야** : 시각예술분야 (회화, 조각, 영상미디어, 건축, 디자인, 사진, 공예)
- ◇ **입주기간** : 2018. 3월 ~ 2019. 2월(1년)
- ◇ **입주장소** : 경기창작센터 (단원구 선감동(대부도) 소재)
- ◇ **접수기간** : 2018. 2. 8.(목) ~ 2. 13.(화)
- ◇ **모집인원** : 2명 (개인별 1실 제공)
- ◇ **문의** : 안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의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5)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 **모금기간** : 집중모금 : 2017. 12. 1. ~ 2018. 3. 31.
연중모금 : 2017. 12. 1. ~ 2018. 11. 30.
- ◇ **납부방법** :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 ◇ **후원문의** :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1577-8179)





새해의 시작에서 읽기 좋은 책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책이 만든다”



아동



1학년 3반 김송이입니다.

저자 정이립 · 신지영
출판사 돌개바람

새로운 시작에는 늘 긴장과 설렘이 함께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참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학교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분명 긴장되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1학년 3반 김송이입니다.』는 제목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듯이 1학년에 막 입학한 신입생 송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눈물이 고인 듯한 앞표지 송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리고와 로사가 생각 여행을 떠났다

저자 로렌츠 파울리 · 카트린 새러
출판사 고래벳속

늙은 표범 리고와 꼬마 생쥐 로사가 나누는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꿈과 걱정 등 삶과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대화를 28편의 작은 이야기로 그려 낸 작품입니다. 28편의 이야기는 단단하게 연결되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고 순서와 상관없이 한 편씩 골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남겨놓아 독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책만드는 책, 책책

저자 소피 베니니 피에트로마치
출판사 이야기꽃

『책 만드는 책, 책 책』은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깝고 익숙하며 사소한 것들 속에는 어떤 이야기와 이미지가 담겨 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불러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또한 막막하기만 했던 글쓰기와 책 만들기는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저자 페르난도 사바테르
출판사 갈매나무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 페르난도 사바테르가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염두에 두고 쓴 철학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여덟 가지 질문을 통해 독자들을 철학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 길에서 독자들은 종종 칸트와 데카르트와 같은 어려운 철학자들을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지표는 역시 질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

저자 박현희
출판사 북하우스

‘독서 유발 인문학 강독회’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여덟 번의 강독회를 묶은 책입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당위를 주장하는 대신 한 권의 책을 깊이 읽고, 함께 읽는 시간을 통해 책의 재미를 맛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똑딱 읽을 수 있는 책, 다른 책도 연달아 읽고 싶어지는 책,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책, 무지하게 두껍지만 술술 읽혀서 읽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책 등 독서 입문자를 위해 신중하게 고른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릿

저자 앤절라 덕워스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힘’이다!” 성공할 거라고 예측됐던 사람들에게선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능도 아니고 외적인 조건도 아닌 바로 ‘그릿 GRIT’ 즉, 열정적 끈기였습니다. ‘그릿’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며, 어려움과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인



신경끄기의 기술

저자 마크 맨슨
출판사 갤리온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라!” 마크 맨슨은 『신경 끄기의 기술』을 통해 기존의 자기계발서를 뒤집는 신선한 패러다임을 선보입니다.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자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리스
출판사 수오서재

미국의 국민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리스, 일명 ‘모리스 할머니’라 불리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그녀 나이 76세였습니다. 평생 농장을 돌보고 버터와 감자 칩을 만들어 팔며 살던 그녀는 소일거리 삼아 놓던 지수가 관절염 때문에 어려워지자 바늘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할 때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받아치는 호쾌한 할머니였던 그녀는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저자 김수현
출판사 마음의숲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 수 있도록,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수록했습니다. 길을 잃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고자 하는 어른아이를 위한 책, 밥벌이와 어른살이에 지친 모든 현대인에게 권하는 책입니다.